



몇 년 전, 며칠 전의 내가 너에게

● ● ●
박 상 은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계절의 변화 속에 다양한 학생들을 글쓰기 교실에서 만나는 일은 여전히 반갑고도 흥미로운 일이다. 학기 중에, 또 방학 기간 중에 상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상기되거나 긴장된, 혹은 풀이 죽거나 무덤덤한 표정 속에서는 그들이 대학 시절이라는 뜨겁고도 불안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도의 열정 장전과 미묘한 노곤함 사이 설렘은 학기 초반을, 전날 밤까지 시달린 표정은 중간 기말 고사를, 당장이라도 엉덩이를 들썩이며 나가야 할 것 같은 자세는 축제 기간을 잘 반영한다. 학생들이 글쓰기교실을 찾아오는 동기는 마감이 닥친 리포트의 압박감, 자신이 제대로 된 주제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에서 오는 무력감 등으로 다양하다. 어떠한 이유에서 찾아왔든 삼십분에서 한 시간 가량 이어지는 글쓰기 상담 시간이 학생들에게 잠시 간의 쉽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상담실에 들어간다.

다양한 전공과 학번의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만큼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마주하게 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가장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요구 사항은 어떻게 하면 리포트를 잘 작성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는 특히 글쓰기교실 상담 프로그램 중 학기 중의 일대일 튜터링을 신청해서 찾아온 학생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목적일 것이다. 요즘 같이 학점을 '당연히' 잘 받아 놓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작은 리포트라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완벽을 기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점 자체, 성적 자체를 위해 상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급박한 리포트 마감 일정 속에 상담실을 찾아왔을지라도 학생들의 고민은 상당 부분 '이토록 어렵게만 느껴지는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질문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내 소리를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낼 수 있을까'에 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각각이 글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글쓰기 상담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장려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글쓰기 문제를 진단해주고 답을 내주는 것이 상담실의 몫이다. 흥미로운 것은 글쓰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당면하는 몇 가지 어려움을 마주할 때 몇 년 전, 그리고 며칠 전까지 상담가이기에 앞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이 떠오르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A는 방학 중 글쓰기 집중 지도에 참여한 학생이다. 신입생으로서 첫 학기를 마친 A는 책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의 단계와 구조에 대해 알고 있다. A는 자신이 공부하는 것 외에는 잘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련의 중요한 고전으로 구성된 방학에 읽을 책 목록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막상 A는 글쓰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짤 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막상 글쓰기에 돌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전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읽은 모든 책의 주장이 너무도 훌륭하고 멋있어 보여서 자신이 제대로 된 비평적 시각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하다.

가볍게 본다면 글쓰기와 공부하기를 즐기는 학생의 푸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학생이 토로한 괴로움의 무게는 상당했다. 또 실제로 상담 횟수가 누적되어 일정한 분량의 글쓰기 과제를 제출해야할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한 상담 시간을 10분 넘겨 전화를 걸어왔다. A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한글 창에 커서만 껌벅거릴 뿐 한 문장도 전진하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해왔다.

B 또한 방학 중 글쓰기 집중 지도에 참여했다. 이공계열 학생인 B는 향후 진로 또한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분야로 정할 예정이지만 학기 중의 수업을 통해 영화를 보고 글쓰기에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과제와 관계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글의 분야를 정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이번 워크숍을 신청하게 되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B가 바랐던 것은 영화평 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 사유들을 반영한 글쓰기의 훈련이었다. B는 영화와 소설 등 작품 감상하기를 즐기는 편이지만 비평적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인문학 행성에 사는 특별한 사람만 작성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상문과 분석 보고서, 비평문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A와 B학생 외에도 함께 나누고픈 C, D, E, F 등 많은 학생의 이야기가 있다. 그럼에도 이 두 학생의 사례만 해도 우리가, 그리고 상담가인 나 자신이 몇 년 전에 그리고 며칠 전까지 겪었던 글쓰기와 관련한 곤란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상



상담실에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패가 두려워 글쓰기를 전진시키지 못하고 미루던 습관들과 내가 작성한 글을 타인이 보게 되면 비난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 내 사유가 완벽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서 오는 강박성을 마주한다. 조금 더 먼저 고민하고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들의 고민을 만날 때 먼저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안쓰럽다. 그리고 의욕이 솟구친다.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잘 넘겨보자라고 내적 독백을 하고는 상담을 진행한다.

글쓰기 교실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보다 본질적인 공통점은 그들이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기반 해 A와 B를 비롯하여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내리는 처방은 의외로 단순한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처방은 본인들도 몰랐던 그 사실, 자신이 글쓰기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전공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술적인 열망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창조적인 열망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학생의 글 혹은 자세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양의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준다. 글쓰기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모자람과 결핍에 대한 보상에서 비롯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안의 정체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로 상담실에 찾아온 용기가 멋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도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글쓰기 목표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쓰라고 종용하는 일종의 약장사 단계이다.

“글쓰기의 심리적 압박은 놀랍게도 학술적 글쓰기의 필수적 구성 성분이자 심지어 본질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이런 압박감 뒤에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오랜 기간 학술적 글쓰기를 가르쳐 온 독일의 학자 오토 크루제가 남긴 말이다. 계절에 관계없이 오늘도, 내일도 학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글쓰기 상담실에 찾아올 것이고 그 심리적 압박을 창조적 원천으로 활용하며 자신만의 글쓰기라는 영역에 올라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통해 어제의 나를 사로잡았던 혹은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글쓰기의 어려움을 다시 조우하면서 글쓰기라는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해줄 것이다. “형편없어도 상관없다.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쓰는 것뿐” 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창조적”이라 말한 수잔 손택을 인용해서 학생들이 실망으로 인해 가라앉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의지와 에너지, 욕구를 갖도록 독려할 것이다.